“염불선은 해탈의 징검다리”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해남 광보사 주지 자황 스님

10월 초순, 남도의 땅 끝 해남 광보사에 20여 명의 수행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꽤 다양하다.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가 이른바 사부대중을 뜻하듯 출 · 재가를 막론한 수행자들이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 바로 염불선(念佛禪)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함이었다.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특별수행 ‘제1회 전국염불수행자 정진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도법사 광보사 주지 자황 스님의 안내에 따라 정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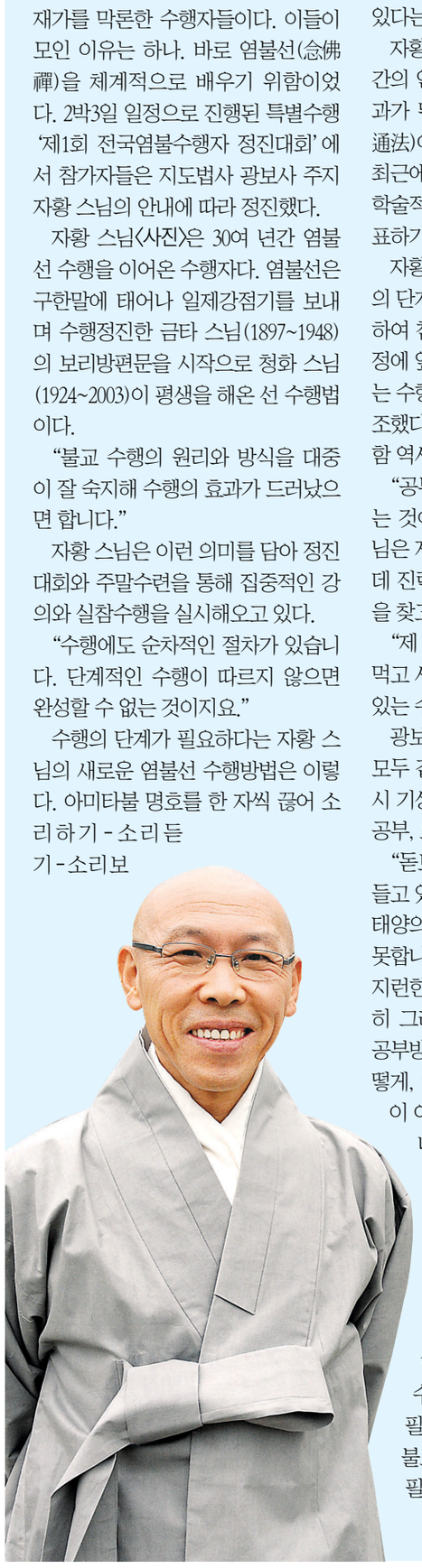
자황 스님<사진>은 30여 년간 염불선 수행을 이어온 수행자다. 염불선은 구한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보내며 수행정진한 금타 스님(1897~1948)의 보리방편문을 시작으로 청화 스님(1924~2003)이 평생을 해온 선 수행법이다.

“불교 수행의 원리와 방식을 대중이 잘 숙지해 수행의 효과가 드러났으면 합니다.”

자황 스님은 이런 의미를 담아 정진대회와 주말수련을 통해 집중적인 강의와 실참수행을 실시해오고 있다.

“수행에도 순차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단계적인 수행이 따르지 않으면 완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수행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자황 스님의 새로운 염불선 수행방법은 이렇다. 아미타불 명호를 한 자씩 끊어 소리하기 - 소리 듣기 - 소리보기로 단계를 구분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소리하기’를 통해 저절로 소리가 들리는 단계(자성염불)를 지나, 소리가 나오는 ‘소리 이전의 자리’를 찾게 된다. 이런 소리보기를 통해 의식의 확대가 이뤄지고, 마음속 의식 공간 전체를 주도면밀하고 세밀하게 통찰하게 되어 마침내 개체의식의 벽이 없어지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황 스님은 “이 염불 참선법은 인간의 인지구조상 마음집중에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근원통법(耳根圓通法)에 바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김용길 원광대 교수가 이를 학술적으로 조명해 연구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자황 스님은 일반적 불교 수행자들의 단계인 몸을 다스리고 호흡을 조식하여 참선수행으로 마음을 깨닫는 과정에 앞서, 자신의 주변환경을 정리하는 수행을 첨가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이 주석하는 사찰의 정갈함 역시 이것에서 비롯됐다.

“공부하는 것보다 수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는 자황 스님.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수행터를 만드는 데 진력해 이제는 본격적인 수행도반을 찾고 있다.

“제 목표요? 함께 먹고, 생활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광보사 수행에 참여한 수행자들은 모두 같은 일정대로 활동한다. 새벽 5시 기상과 함께 아침 공부, 공양, 개인공부, 오후공부, 울력, 참선 등이다.

“돋보기를 ‘열심히’ ‘간절히’ 오래 들고 있다 해도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태양의 열을 모아 종이를 태워 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한 ‘의지적인 공부방식’과 간절히 그리고 사무치는 식의 ‘감성적인 공부방식’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어떻게, 왜?’라는 ‘지성적인 공부방식’이 아니고서는 끝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해탈의 징검다리’ 염불선 공부법에는 의지, 감성, 지성적인 세 가지 공부방식이 모두 들어 있어 깨달음에 이르는 데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하고 강력합니다.”

자황 스님 염불선이 이전 수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행방법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노력이다. 한국불교는 이제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반시민 다문화수용성 증진사업 전개

(사)착한벗들, 각종 NGO단체들과 연계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시작해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다문화수용성 증진사업은 전북 최초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문화에 대한 지역민들과 청소년들의 바른 인식 및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결혼이주여성 강사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요리를 활용해 진행하는 다문화요리체험 ‘음식으로 나누는 세계문화’와 일반시민 · 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문화나눔 독서동아리’ 활동이 있다.

다문화요리체험은 일반시민과 NGO활동가 등 총 300명이 참여해 10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 25회에 걸쳐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일본 등의 대표적인 음식인 오꼬노미야끼, 춘권, 볶음칼국수, 블리느, 반똥돔, 양장피 잡채 등 아시아 각국의 요리를 직접 조리해 보는 체험활동이 진행 중이다.

또 격주로 진행되는 독서동아리는 30여명의 시민이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전쟁의 슬픔, 아큐정전, 붉은 수수밭 등 동아시아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각국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독서동아리에 참가하고 있는 김미례씨(전주시 삼천동)는 “어릴 적 부모님 심부름하며 가게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중국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후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닌 우리의 이웃처럼 가깝게 느껴졌다”며 “앞으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좀 더 알아가며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각국 다문화요리체험과 문화공부 독서동아리 등 11월 말까지 사업 운영

(사)착한벗들 관계자는 “다문화사회를 맞은 우리 사회 현실에서 다문화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그간 일반시민들과 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나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전부였다”며 “본 사업이 요리와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사업은 전주시의 후원으로 전북독서연합회, 국제요리학원, 자연음식문화원, 전북 다누리 콜센터, 전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북NGO센터 소속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가부에서 발표한 ‘2015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 의하면 ‘호남, 제주’ 권역의 경우 4개 권역중 ‘경상, 영남권’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53.88) 다문화수용성을 보였으며 타 권역에 비해 ‘다문화에 대한 거부. 회피 정서’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에 대한 이 지역 일반시민들과 청소년들의 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사)착한벗들은 전북도민들의 다문화수용성 실태를 보다 자세하게 알고 정책과제 도출 및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1,500명에게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1월 26일 전주교육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착한벗들이 실시하는 다문화수용성 증진사업 일환인 다문화요리체험 ‘음식으로 나누는 세계문화’ 참가자들이 각국 전통요리를 만들며 다문화 이해를 높이는 모습.

조동제 전북지사장

깨달음 예술, ‘광주영산재’ 정기시연

광주불교영산보존회, 10월 16일 금호동 법륜사서

광주 유일의 불교 무형문화재인 영산재 시연회가 열렸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회보존회(회장 월인)는 10월 16일 금호동 법륜사서 ‘제12차 전통불교영산재 보존 시연회’를 봉행했다.<사진>

2014년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는 매년 가을 정기시연회를 통해 불자와 시민들에게 영산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사는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을 증명법사로 혜령 스님(범음 이수자), 월인 스님(작법 이수자), 호산 스님(바라 이수자)을 등 전수생과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신도 등 200여 대중이 동참했다.

가을비가 내려 실내서 진행된 시연회는 목탁을 치는 스님을 선두로 소라, 북, 좌발, 호적으로 구성된 취타대에 맞춰 영가(輦)에 모신 영가를 도량으로 인도하는 시련과 부처님의 위신력과 감로의 법으로 깨끗이 씻는 대령관욕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법회의식인 상단권공이 시작되어 가장 화려한 작법무인 나비춤, 바라춤 진행되자 참석한 대중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신중단 기도를 위한 중단퇴공과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을 청해 모시는 관음시식은 법회의 백미였다.



행사를 준비한 월인 스님은 “광주영산재는 매월 연습과 매년 연수교육을 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향후 전수관 건립으로 불교계의 문화유산을 길이 남길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영산재는 흔히 ‘깨달음의 예술’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거룩한 법회회상을 종합예술로 승화시킨 것”이라며 “모든 생명의 존엄함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앞으로 더욱 보존하고 지켜야할 불교의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목조문화재 화재진압 대책 연구

고창소방서, 합동소방훈련 계획

전북 고창소방서가 선운사, 참당암, 도솔암 등 다수의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화재에 대비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고창소방서는 선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찰별 문화재 안전대책과 향후 단계별 세부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창소방서는 선운사 대웅전, 참당암, 도솔암 등서 2016년 하반기 목조문화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운사는 산내암자인 참당암, 도솔암, 석상암에 보물 290호 선운사 대웅전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6점과 천연기념물 3점, 지방문화재 11점, 문화재 자료 3점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12절 258㎜×265㎜
100부 이상 @ 1,000원
3천부 이상 @ 8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행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